관계부처합동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9.(목) 10:00
(지 면) 2026. 11. 19.(목) 석간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회의 개최 -

- 지역 투자·일자리 확대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범부처 과제 발굴 추진
- 지역 여건에 맞는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9일 오후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와 생활 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지역간 격차완화반」의 운영계획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한다. 특히, 각 부처 단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하여, 기업 투자가 청년의 취업·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 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 분담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라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 부처의 역량을 모아,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장	조진상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채현숙 (044-205-390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익진 (044-201-3646)
		담당자	사무관	윤희근 (044-201-49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